

일개 여자대학교의 안전사고 환자 발생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 정 선 · 위 자 형

= Abstract =

Incidence of Accidents in a Women's University : A Cohort Study

Jung-Sun Park, Cha-Hyung Wi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Medical College, Ewha Womans University

To determine the incidence rate and the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accidents in Ewha Womans University, a cohort observation was carried out from August 1988 to July 1990.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patients came to the University Health Center.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 1) The annual incidence rate of accidents was 18.4 in college students ; 8.5 in postgraduate students ; and 17.4 per 1,000 in the faculty respectively.
- 2) The Autumn(41.8%) was the season of high incidence for accidents, and the afternoon(49.9%) was the time of high incidence for accidents. However, there was no appreciable difference by day of week.
- 3) The places of high incidence for accidents were dormitory(14.6%), laboratories(11.8%), and play ground(9.1%) except for outside the university(33.0%).
- 4) Self-carelessness(91.9%) was the most frequent cause of accident.
- 5) The frequent injury were abrasion(43.2%) and laceration(26.8%).
- 6) The frequent injured sites were hands(35.1%) and legs(31.3%).
- 7) The interval between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and the treatment was less than 1 hour(46.6%).
- 8) After accidents, most college students(78.6%), visited the university health center for care during school days, but most postgraduate students(97.5%) and the faculty(75.6%) visited university dormitory health office during afternoon and night.

서 론

‘안전사고’란 공장 따위에서, 안전교육의 망각 또는 일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고¹⁾를

말한다. 따라서, 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유발요인이 반드시 개재한다는 점에서 예측불가능한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사고나 재해 발생도 그 성립과정을 질병과 거의 동일하게 보는 견해가 많다. J.E. Gordon(1949)은 질병발생성립요소인 주체요인, 동인, 환경 등의 삼자관계를 사고나 재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으며, W.H.Heinrich는 사고나 재해의 발생을 몇 개 요인의 연속과정으로 파악하고 그 연속성을 도중에 차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론을 내세웠다. 그는 사고에 관계되는 요인으로 기계 및 사회적 환경, 인간의 과실, 불안전 행위 등의 배경요인과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발단요인을 들었다²⁾. 그러가 하면, 학교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환경의 잠재위험, 복장의 잠재위험, 행동의 잠재위험, 심신상태의 잠재위험 등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다²⁾.

오늘날 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전염성질환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산업 및 교통의 발달로 각종 중독 및 사고는 증가함으로써 최근 10여년 사이 주요사인 순위에 있어 큰 변동을 보였다. 1990년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발간된 사망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불 때 불의의 사고가 사망원인 제3위(11.90%)였으며, 15~24세 여자군의 사망원인 제1위(29.02%)가 불의의 사고로 나타났다⁷⁾. 이것으로 미루어 생리적으로 특별한 건강문제가 별로 없는 대학생 연령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건강위험이 오늘날 무엇보다 중요한 보건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학생 및 교직원은 비교적 다른 사회보다는 안전한 환경을 가진 학교라는 특별한 조직체 내에서 많은 시간동안 단체행동을 하므로 안전사고 발생양상에 있어서도 안정된 경향을 보이리라 짐작되나, 지금까지 국내의 학교사고발생에 관한 연구^{8~12)}를 살펴보면 그 대상이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국한되어 있다.

본연구는 일개여자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규모 및 그와 관련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코자 계획되었다.

연구대상 및 방법

본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대학생, 대학원생 및 교직원 18,566명(1988학년도 및 1989학년도 등록

자의 평균수)³⁾¹⁴⁾을 대상으로, 1988년 8월 부터 1990년 7월 까지의 기간중에 사고로 인해 대학보건소 진료실을 찾아온 환자를 집계·분석한 것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본연구목적에 맞게 고안한 개인용「손상처치기록전」에 환자처치가 끝난후 상처의 소견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역학적 정보를 면담하여 기록하였다. 상처가 복합적일 경우 가장 심한 상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사고원인이 복합적일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원인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대학보건소 또는 기숙사 처치실에서 진료받은 사고환자에 대해서는 사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사고에 의해 상처를 입고도 진료실을 찾지 않은 경우는 본조사에 포함되지 못했다.

분석을 위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PC+ package를 이용하였으며, 대학생·대학원생·교직원을 구분하여 발생률 외에도 사고발생 시기, 장소 원인 및 상처종류별 백분률 분포를 구하였다.

조사성적

1. 안전사고 환자의 연간발생률

1988년 8월 부터 1990년 7월 까지 안전사고로 대학보건소를 이용한 환자수는 대학생 561명, 대학원생 40명, 교직원 45명 등 총 646명으로 대상별 연간발생률은 각각 1,000명당 18.4, 8.5, 23.5이었으며 전체발생률은 1,000명당 17.4였다.

한편, 대학생 안전사고 환자발생률을 단과대학별로 보면 간호대학이 1,000명당 92.8, 약학대학이 39.4로 높았으며, 법정대학과 가정대학은 6.9, 6.7로 매우 낮았다. 또한 학년별로 볼 때 1학년생이 1,000명당 25.6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학년이 높을수록 발생률이 낮아 4학년 학생이 12.1로 가장 낮았다(표 1).

2. 안전사고 환자의 발생시기별 분포

안전사고 환자의 계절별 발생분포를 보면 대학생 대학원생 및 교직원 공히 가을에 40.8%, 42.5%, 53.3%로 가장 많고 겨울에는 3.2%, 2.5%, 4.4%로서 가장 적었다.

그러나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경우 봄에 발생환

Table 1. 안전사고 환자의 대상별 연간 발생률

(율 : 1,000명당)

대상	발생률	대상수(A) (1988년 및 1989년 평균)	안전사고 환자수(B) (1988. 8~1990. 7)	연간발생률 (B/2A)
대학생	인문	3,360	150	22.3
	자연	1,514	83	27.4
	음악	939	53	28.2
	미술	1,580	61	19.3
	체육	770	15	9.7
	사범	2,883	53	9.2
	법정	2,171	30	6.9
	의학	552	22	19.9
	간호	237	44	92.8
	약학	507	40	39.4
	가정	750	10	6.7
	계	15,263	561	18.4
	1학년	3,849	197	25.6
	2학년	3,844	155	20.2
3학년	3,729	116	15.6	
4학년	3,841	93	12.1	
대학원생	2,344	40	8.5	
교직원	959	45	23.5	
계	18,566	646	17.4	

Table 2. 안전사고 환자의 계절별 백분율 분포

(환자수)

대상	계절	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	겨울 (12~2월)	계
대학생		40.1	15.9	40.8	3.2	100.0(561)
대학원생		40.0	15.0	42.5	2.5	100.0(40)
교직원		13.3	28.9	53.3	4.4	100.0(45)
전 체		38.2	16.7	41.7	3.3	100.0(646)

예가 가을과 거의 동일하게 많았으나 교직원의 경우는 가을 다음으로 여름에 봄보다 훨씬 많은 발생을 보였다(표 2).

안전사고 환자의 요일별 발생분포를 보면, 요일 간에 이렇다할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대상별로 그 분포를 조금씩 달리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대학생은 수요일(18.9%), 화요일(18.0%)이 높고 토요일(8.0%)이 낮았으나, 대학원생의 경우 목요일(25.0%)과 월요일·수요일(각각 17.5%)이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일요일이 2.5%로 가장 낮았던 반면에, 교직원의 경우에는 화요일(20.0%) 토요일(17.8%)순으로 높고 월요일이 8.9%로 가장 낮았다(표 3).

학생 및 교직원의 정규수업시간 내지 근무시간인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까지를 4시간씩 반분하여 각각 오전, 오후 수업(또는 근무) 시간으로 볼때, 대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환자발생은 오후 시간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대학원생은 오전 시간에 많은 분포를 보였다(표 4).

3. 안전사고 환자의 사고장소별 발생분포

안전사고 환자의 사고장소별 발생분포를 보면, 대학생·대학원생·교직원 공히 등하교길(또는 출퇴근길)에 교문 밖 거리에서 다친 경우가 각각 32.4%, 43.5%, 31.1%로 가장 높았으며,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중에는 대학생의 경우 기숙사(15.0%), 실험실(12.1%)순이었고, 대학원생의 경우 강의실

Table 3. 안전사고 환자의 요일별 백분률 분포 (환자수)

대상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대학생		16.2	18.0	18.9	15.3	12.3	8.0	11.2	100.0(561)
대학원생		17.5	10.0	17.5	15.3	12.3	8.0	11.2	100.0(561)
교직원		8.9	20.0	15.6	13.3	13.3	17.8	11.1	100.0(45)
전체		15.8	17.6	18.6	15.8	12.4	9.1	10.7	100.0(646)

Table 4. 안전사고 환자의 발생시간별 백분률 분포 (환자수)

대상	발생시간	수업중*			방과후	계
		오전	오후	소계		
대학생		29.6	51.8	81.4	18.6	100.0(561)
대학원생		65.0	30.0	95.0	5.0	100.0(40)
교직원		31.1	44.4	75.5	24.5	100.0(45)
전체		31.9	49.9	81.8	18.2	100.0(646)

*오전 : 09 : 00~13 : 00, 오후 : 13 : 00~17 : 00

Table 5. 안전사고 환자의 사고장소별 백분률 분포 (환자수)

대상	사고장소	교 내								교외	계	
		기숙사	실험실	운동장	계단	교실	식당	수영장	기타			소계
대학생		15.0	12.1	10.2	8.2	5.9	1.8	0.5	13.9	67.6	32.4	100.0(561)
대학원생		2.5	17.5	2.5	2.5	20.0	-	-	12.5	57.5	42.5	100.0(40)
교직원		20.0	2.2	2.2	2.2	8.9	2.2	6.7	24.5	68.9	31.1	100.0(45)
전체		14.6	11.8	9.1	7.4	6.9	1.7	0.9	14.6	67.0	33.0	100.0(646)

Table 6. 안전사고 환자의 발생원인별 백분률 분포 (환자수)

대상	발생원인	본인부주의	환경부실	타인잘못	취루탄	유해곤충	계
대학생		91.1	3.2	2.5	2.0	1.2	100.0(561)
대학원생		100.0	-	-	-	-	100.0(40)
교직원		95.6	4.4	-	-	-	100.0(45)
전체		91.9	3.1	2.2	1.7	1.1	100.0(646)

(20.0%), 실험실(17.5%) 순이었다. 교직원의 경우에는 기타(24.5%), 기숙사(20.0%)등이었다(표 5).

4. 안전사고 환자의 발생원인별 분포

안전사고 환자의 발생원인별 분포를 보면, 본인 부주의 때문인 경우가 대학생 91.1%, 대학원생 100.0%, 교직원 95.6%로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이 미끄러운 바닥, 울퉁불퉁한 바닥, 못이 튀어나옴 등의 환경불량 탓인 경우(대학생 3.2%, 교직원 4.4%)였으며, 이런 경우 관계부처에 연락하여 즉각 환경개선조치를 취하게 하였다(표 6).

5. 안전사고 환자의 상처종류별 분포

안전사고 환자의 상처종류별 발생분포를 보면, 대학생의 경우 찰과상(44.9%), 열상(25.0%), 화상(15.5%), 대학원생의 경우 역시 찰과상(37.5%), 열상(35.0%), 화상(20.0%)였으나 교직원의 경우에는 열상(42.3%), 찰과상(26.7%), 화상(20.0%)의 순이었다(표 7).

6. 안전사고 환자의 손상부위별 분포

안전사고 환자의 손상부위별 발생분포를 보면, 대학생·대학원생·교직원 공히 제 1순위가 손부위로 각각 33.7%, 45.0%, 44.4%의 분포를 보였고, 제 2위는 다리 부위로 각각 32.6%, 27.5%, 17.8%의 분포를 보였으며 단지 교직원의 경우 팔부위에서

Table 7. 안전사고 환자의 상처종류별 백분률 분포 (환자수)

상처종류 대상	찰과상	열상	화상	자교상	염좌	탈구	기타	계
대학생	44.9	25.0	15.5	5.5	6.1	0.9	2.1	100.0(561)
대학원생	37.5	35.0	20.0	—	7.5	—	—	100.0(40)
교직원	26.7	42.3	20.0	2.2	4.4	—	4.4	100.0(45)
전 체	43.2	26.8	16.1	4.9	6.0	0.8	2.2	100.0(646)

Table 8. 안전사고 환자의 손상부위별 백분률 분포 (환자수)

손상부위 대상	손	발	팔	다리	얼굴	몸통	계
대학생	33.7	10.9	10.9	32.6	10.3	1.6	100.0(561)
대학원생	45.0	15.0	12.5	27.5	—	—	100.0(40)
교직원	44.4	11.1	17.8	17.8	8.9	—	100.0(45)
전 체	35.1	11.1	11.5	31.3	9.6	1.4	100.0(646)

Table 9. 안전사고 환자의 처치까지의 소요시간에 따른 상처종류별 백분률 분포 (환자수)

상처종류 소요시간	찰과상	열상	화상	자교상	염좌	탈구	기타	전체	
당일	1시간 이내	50.2	55.5	34.6	40.6	28.2	40.0	21.4	46.6
	1시간 } 3시간	21.9	15.0	12.5	12.5	23.1	—	14.3	17.8
	3시간 } 8시간	20.6	16.8	25.0	25.0	41.0	—	42.9	21.2
	소계	90.7	87.3	72.1	78.1	92.3	40.0	78.6	85.6
2일 이상	9.3	12.7	27.9	21.9	7.7	60.0	21.4	14.4	
계	100.0 (279)	100.0 (173)	100.0 (104)	100.0 (32)	100.0 (39)	100.0 (5)	100.0 (14)	100.0 (646)	

Table 10. 안전사고 환자의 처치장소별 백분률 분포 (환자수)

대상	처치장소 대학보건소 진료실	기숙사 보건실	병원	계
대학생	78.6	21.0	0.4	100.0(561)
대학원생	2.5	97.5	—	100.0(40)
교직원	24.4	75.6	—	100.0(45)
전 체	70.1	29.6	0.3	100.0(646)

다리부위와 같은 17.8%의 분포를 보였다(표 8).

7. 안전사고 환자의 처치까지의 소요시간

안전사고 환자의 발생에서 처치까지 소요된 시간을 보면 1시간이 내가 46.6%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인 17.8%였으며 사고발생당

일내에 처치받은 경우는 총 85.6%였다.

한편 처치까지의 소요시간 분포를 상처종류별로 보면 빠른 시간(1시간 이내) 내에 처치받은 경우가 열상, 찰과상 등 비교적 가벼운 상처일때에 각각 55.5% 50.2%로 높았으나 오히려 탈구(40.0%) 염좌(28.2%) 화상(34.6%)등 보다 전문적인 구급처

치를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보다 낮은 분포를 보였다(표 9).

8. 안전사고 환자의 처치 장소별 분포

안전사고 환자의 처치장소는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보건소 진료실 70.1%로 가장 높았으나 대상별로는 대학생의 경우에만 대학보건소 진료실 이용(78.6%)이 많았고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경우에는 각각 97.5%, 75.6%로 기숙사 보건실 이용이 많았다(표 10).

고 찰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에 관해 조사한 연구결과가 없어 본 조사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본 조사내에서 대상별로 비교한바에 의하면 대학원생의 발생율이 1,000명당 8.5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학교내 상주시간 정도와 다소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대학원생은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교직원이나 이수학점이 많은 대학생들에 비해 학교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리 많지않은 탓이라 짐작되기 때문이다.

본 조사대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학생의 경우 단과대학별 또는 학년별로도 발생율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연간발생율은 1,000명당 92.8로 매우 높았던 반면에 법정대학이나 가정대학은 6.9, 6.7에 지나지 않았다.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여러관점을 종합한 후에나 가능하겠지만 간호대학 학생에서의 발생율이 높은것은 그들이 예비의료인으로서 타과대학생들과는 근본적으로 의료이용에 대한 태도가 다른데서 기인한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학보건소에서 매년 발행하는 통계연보에 의하면 타 대학에 비해 간호대학생의 진료실 이용율이 월등히 높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⁴⁾.

학년별로는 1학년에서의 발생율이 1,000명당 25.6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체육 실기 과목이 교양필수 과목으로서 대개 1학년 1, 2학기 과정동안 이수되고 있으며 학교 캠퍼스에 아직 익숙하지 않는 시기라는 점등이 다소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중 안전사고 환자의 계절별 발생 분포가 가을과 봄에 집중되어 있음은 학기 수업과 부합되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으며, 방학시기인 여름과 겨울중 여름에 더 많은 것도 기후와 신체활동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교직원에 있어서 가을 다음으로 여름에 안전사고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강의가 없고 겨울보다는 비교적 활동하기가 나은 여름방학기간중에 교내의 각종시설수리 및 설비 등의 공사작업이 집중되기 때문이라 본다.

안전사고 환자의 요일별 발생분포에 있어서는 대상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각대상 내에서는 요일간의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하루중 사고발생 시각을 보면, 대학생과 교직원은 오후에, 대학원생은 오전에 안전사고 환자의 발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추측해 보면 대학원생은 강의시간이 비교적 한정되어 있지만, 대학생의 경우 1교시 시작이 8시 10분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첫강의가 3교시인 10시 10분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과 교양 과목인 체육실기 및 전공실험과목이 오후시간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⁵⁾⁶⁾ 점이 다소 영향을 미쳤으리라 여겨진다.

안전사고 환자의 사고장소별 발생분포에 있어서는 대상별 특성의 영향이 큰 것이므로 본조사의 주요대상인 대학생의 경우를 보면 교외(32.4%)에서의 사고를 제외하고 기숙사(15.0%), 실험실(12.1%), 운동장(10.2%)순이었다. 이것은 신체활동이 많은 곳에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안전사고의 발생원인별 분포를 보면 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공히 본인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각각 91.1%, 100.0%, 95.6%로 압도적이었다. 본인 부주의에 의한 예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굽높은 구두를 신고 헛디딤, 새구두에 의해 발뺨 꿈치가 벗겨짐, 급하게 뛰어가다 넘어짐, 실험기구 조작미숙으로 다침, 칼에 베임 등이었다. 그 밖에 소수이긴 하나 제 2위를 차지한 발생원인은 환경 불량이었다는데 이것은 주로 물기가 있어 미끄러운 바닥, 울퉁불퉁 고르지 못한 콘크리트 바닥, 의자에 튀어나온 못, 고장난 온수샤워꼭지 때문이라 했으며, 대학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원인에 의한 사고환

자를 접하는 즉시 관계부처에 연락하여 후속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케 하였다.

안전사고 환자의 상처종류별 분포를 보면 가장 가벼운 정도의 상처라고 할 수 있는 찰과상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열상이었다. 탈구와 염좌 등 전문의의 진찰을 요하는 환자가 적었던 것은 여자대학교라는 특성 때문이라 짐작된다.

손상 부위별로는 손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이것은 산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통계결과¹³⁾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이 일상생활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늘 노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손이기 때문일 것이다.

안전사고 환자의 발생에서 처치까지의 소요시간을 볼 때 1시간 이내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사고발생 당일내에 총 환자의 85% 이상이 처치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분포를 상처종류별로 살펴보면 매우 걱정스러운 결과가 나타난다. 즉 개방창이기는 하나 가벼운 상처인 열상 찰과상 등의 경우에는 비교적 빨리 처치를 받는 반면 개방창은 아니더라도 신중하게 상처를 다루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의의 진찰을 요하는 탈구 염좌 또는 화상 등에 있어서는 전자의 경우에 비해 처치까지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어떤 상처를 막론하고 그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불행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위생적인 구급처치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기는 하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또는 교양체육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거듭 인식시켜야 될 것 같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안전사고 발생규모를 파악함에 있어 대학보건소 이용자를 중심으로 집계하였다는 점이다. 즉 본 연구의 대상 인구가면서도 안전사고 발생후 대학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바 엄격한 의미에서의 발생률은 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대학교 대학보건소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표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보건소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와 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점심시간인 12시에서 오후 1시 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3시 까지 근무연장하여 진료실을 개방하고 있고 방과후인 오후 6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기숙사 진료실을 개방하고 있어 사실상 24시간 교내 환자발생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누락된 안전사고 환자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이화여자대학교의 안전사고 발생규모 및 그에 관련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1988년 8월 부터 1990년 7월 까지의 2년간 대학보건소 시설을 이용한 안전사고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안전사고 환자의 연간발생률은 각대상 1,000명당 대학생 18.4, 대학원생 8.5, 교직원 17.4였다. 대학생중에서는 간호대학생(92.8 per 1,000)과 1학년생(25.6 per 1,000)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2) 안전사고 환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가을(41.8%)과 봄(38.2%)에 많이 발생하였으나 교직원의 경우에는 봄보다 여름(28.9%)에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요일별 발생분포는 수업이 적거나 없는 주말을 제외하곤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일일중 발생시각은 오전 보다 오후가 더 많았고 방과후 시간에 발생한 경우도 18.2%나 되었다.

3) 안전사고 발생장소는 학교로 오가는 길에서의 경우가 33.0%로 가장 많았고, 교내에서는 기숙사(14.6%), 실험실(11.8%), 운동장(9.1%)의 순이었다.

4) 안전사고 환자의 발생원인은 절대 다수가 본인부주의(91.9%) 때문이라 했으며 환경불량은 3.1%였다.

5) 상처종류별 분포는 찰과상(43.2%), 열상(26.8%)등 비교적 가벼운 상처가 대부분이었고 탈구(0.8%), 염좌(6.0%)등 병원후송이 필요한 예는 그리 많지 않았다.

6) 손상부위는 주로 손(35.1%)과 다리(31.3%)부분이었다.

7) 안전사고 발생에서 처치까지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가 46.6%로 가장 많았고, 사고발생 당일내에 총환자의 85.6%가 처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안전사고의 처치장소는 대학생의 경우 대학

보건소 진료실(78.6%)을,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경우에는 기숙사 보건실(각각 97.5%, 75.6%)을 많이 이용하였다.

9)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대상 가운데 안전사고발생 고위험집단은 신입생, 간호대학생, 시설과 직원 등이라 하겠으며, 관리가 가능한 교내발생사고만 국한해 볼 때 기숙사, 실험실, 운동장 등이 사고빈발 위험장소로 지목될 수 있겠다.

References

- 1) 민중서림 : 민중엣센스 국어사전, 1990 : p.1435
- 2) 주영재 : 건강학개론, 도서출판 의학서원, 1988 : pp.559-560
- 3) 이화여자대학교 대학보건소 : 대학보건연차보고, 1988학년도
- 4) 이화여자대학교 대학보건소 : 대학보건연차보고, 1989학년도
- 5) 이화여자대학교 학무처 : 1990학년도 제 2학기 중
합시간표, 1990
- 6) 이화여자대학교 학무처 : 1991학년도 제 1학기 중
합시간표, 1990
- 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1989년 사망원인통계연
보, 1990
- 8) 송은이 : 일부 중등학교 학생의 양호실이용 양상,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85
- 9) 안광태 : 일부 국민학교 아동의 결석 및 사고발
생에 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
대학원, 1977
- 10) 이주영 : 서울시내 국민학교 학생의 교내 및 교외
사고발생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1
- 11) 전양령 : 중학교 남학생의 성격특성과 결석 및
사고발생과의 관련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학교 보건대학원, 1983
- 12) 박정환·박미화 : 남자중학교 학생의 사고발생율
과 사고원인에 관한 코호트연구, 1987
- 13) 장복수 외 :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계축문화사,
1990 : pp.289-290